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 상승

김두얼

한국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Tel: 02-958-4124

e-mail: duolkim@kdi.re.kr

(2010.3.29.)

*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자료 작업을 수행해 준 박소윤, 임효정씨께 감사드린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 상승

요약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1963년부터 1980년대 중엽까지 25세 수준이 유지되다가 이후 10년 동안 3-4세 가량 상승한 이후,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28-29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응시자와 합격자의 연령분포를 종합해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평균연령 상승 현상은 평균 응시기간 증대 때문이 아니라 처음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시점이 3세 가량 상승한데 기인한 결과임이 밝혀졌다. 시험제도 자체나 통상적으로 상정해 볼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보았으나, 이러한 변화를 야기했다고 할 만한 요인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향후 대학생들의 생활양식 변화 자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 문제를 구명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1. 도입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축적은 개인의 소득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핵심 원천이다. 각 개인들은 미래수익과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얼마만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수행할 지 결정하는데, 사회적 제도나 국가 정책은 이러한 기대이익이나 비용에 작용하여 인적자본 축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변호사, 의사처럼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이 요구되는 전문직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자격제도 혹은 면허제도를 통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수준만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정부가 자격수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하거나 인위적으로 자격부여인원을 제한할 경우, 자격지원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노력을 들이도록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격제도의 운영에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법시험이 처음 시행된 1963년부터 2002년까지 40년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이 25.1세에서 28.8세로 3.7세 가량 증가했다는 법무부의 2003년 발표는 주목할 만 하다.¹⁾ 만일 이같은 합격자 평균연령의 상승이 최종 합격까지 걸리는 기간의 증가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면, 이는 동일한 자격을 획득하는데 3-4년이라는 긴 시간을 더 투자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평균연령의 상승은 2000년대 들어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1,000명까지 증가한 결과 “사시의 본전 연령이 40세에서 35세 정도로 낮아졌다”는 통념과는 상반된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조전문인력 수급과 관련된 흥미로운 문제를 제기한다.²⁾ 이처럼 중요한 함의를 담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합격자 평균연령의 장기적 변화가 왜 발생하였는지 구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체계적인 노력은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해서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이 왜 증가하게 되었는지를 구명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분석에 사용하게 될 자료를 제시한 뒤, 1963년부터 현재까지의 합격자 평균연령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후 제3장에서는 이러한 평균연령 변화가 발생하게 된 원천(source)이 응시자들의 시험 시작 시점이 늦어져서인지 아니면 응시기간의 장기화 때문인지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사법시험 제도의 변화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등 합격자 평균연령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열거한 뒤, 이들이 제2, 3장에서 파악한 통계적 양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를 점검할 것이다.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연령상승에 대해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 무엇인지 제5장에서 제시해 보기로 한다.

1) 법무부

2) 경향신문 (2004).

2.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 추이

(1) 자료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관련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j 년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을 A_j 라 하면, A_j 는

$$A_j = \frac{\sum_{n=1}^N \lambda_n}{B_j} = \frac{\sum_{a=k}^K ab_{aj}}{B_j} \quad \text{----- (1)}$$

λ_{nj} : j년도 최종합격자 n이 시험에 합격한 연령, $n = 1, 2, \dots, N$

b_{aj} : j년도 최종합격자 가운데 a세 합격자의 수. $a = k, \dots, K$.

B_j : j년도 최종합격자 총수, $B_j = \sum_{a=k}^K b_a$

와 같이 계산될 수 있는데, 위 식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해당변수의 시계열은 크게 세 가지 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다 (<표1> 참조). 첫째는 사법시험을 주관하는 부처의 공식 자료이다. 사법시험은 1963년에 처음 실시되었는데, 이 때부터 2001년까지 총무처 등 공무원선발시험을 담당하는 행정부처가 관장하였다.³⁾ 『총무처연보』에는 이들 부처들이 집계한 최종합격자의 연령별 분포가 제공되어 있다. 2002년부터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관장하게 되면서, 법무부는 “사법시험” 웹사이트를 마련하고 시험 관련 통계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연령분포와 관련해서 『총무처연보』는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연령분포를 21세부터 29세까지는 2년 단위로 통합해서 제시하고 그 외의 연령은 보다 큰 단위로 집계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비해 법무부 자료는 18세부터 39세까지의 영역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합격자 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분포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법무부 자료는 합격자에 대한 통계 뿐 아니라 응시자, 1차합격자의 연령분포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서 연령별 합격률을 분석할 수 있다.

둘째는 국가고시 전문 월간지인 『고시계』가 제공한 자료이다. 『고시계』는 1980년부터 1989년까지 매 연령마다 몇 명의 응시자 및 합격자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게재하였다. 총무처 등에서 제공한 원자료를 게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통계는 법무부 사법시험 자료처럼 합격자에 대한 통계 뿐 아니라 응시자, 1차합격자의 연령분포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단 모든 연도에 대해 모든 자료가 수록된 것은 아니고, 응시자는 1980, 1982, 1983, 1985, 1986, 1987년, 최종합격자 자료는 1982년부터 1989년까지가 게재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법조인대관』이다. 이 자료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모든 법조인들의 개인 기

3) 1963년 이전에는 고등고시 사법과를 통해 변호사 자격이 부여되었다. 시험의 내용이나 형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자료 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본 연구의 분석은 사법시험에 한정하기로 한다.

록을 수록한 명부로, 본 연구와 관련해서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각 법조인의 탄생연월일과 사법시험 합격연도를 제시하고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할 경우 여러 가지 집계자료를 사용하는데서 발생할 수도 있을 자료의 일관성 문제를 점검할 수 있다. 아울러 사법시험 합격자의 성별분포나 병역 이행 방식 등 최종합격자 평균연령과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자료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법조인대관』에 수록된 법조인 중 성이 “ㄱ”자로 시작하는 법조인들의 개별 자료를 입력, 분석하였다. “ㄱ표본”에 해당하는 법조인 중 1963년 이후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된 사람은 총 4,381명으로, 전체 법조인 자격자의 약 30% 정도에 해당한다. 합격자의 성은 사법시험 합격여부와 독립적이라는 점, 아울러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각 연도별 평균연령 계산에 필요한 충분한 관측치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ㄱ표본”은 분석에 필요한 대표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평균연령의 추이

[그림1]은 총무처와 법무부의 자료를 이용,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 변화 추이를 계산한 결과이다. 1963년부터 1986년까지는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26세 이상으로 상승한 연도는 3개 연도에 불과하며 평균연령 25.2세 수준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평균연령은 1987년에 26.0세가 된 이후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1996년에는 28.4세에 도달하였다. 이후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대체로 28세에서 29세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⁴⁾ 다시 말해서 사법시험 합격자의 연령 추이는 크게 보면 1963년부터 1980년대 중엽까지 25세 수준이 유지되던 시기, 이후 1990년대 중엽까지 약 10년 동안 평균연령이 상승하는 이행기, 그리고 199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28세 수준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나누어지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2000년 이전과 이후를 추정하는데 사용된 자료의 차이 혹은 연령 집계방식의 상이함에 기인한 것인지를 점검하기 위해 고시계 자료를 이용해서 1980년대 평균연령을 계산해 보았는데, 결과는 동일하였다. 아울러 법조인대관의 “ㄱ”표본“ 이용, 개인별 출생연도와 사법시험 합격 기수로 연령을 계산한 결과 역시 대체적으로 집계자료가 보여주는 것과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합격자의 평균연령 변화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1980년대와 2000년대의 연령분포를 비교하였다 ([그림2]).⁵⁾ [그림3]에 제시된 바와 같이 1980년대와 2000년대는 총합격자가 각각 300명, 1000명 수준이기 때문에 분포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 하지만 양자 모두 F분포처럼 다소 우측으로 경도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응시자 연령의 하방 한계를 고려한다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최빈수가 위치한 연령대의 차이이다. 1980년대의 경우 최빈수가 23세이고 22세에서 24세가 전체 합격자의 38.2%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22세 이하에는 9.5%, 25세 이상에는 52.2%가 배치되어 있다. 이에 비해 2000년대의 경우 26세가 최빈수이며, 25세에서 27세 구간에 전체 합격자의 31.7%가 위치하고 있다. 24세 이하는 18.0%, 28세 이상은 50.2%이다. 결

4) 1996년에서 2009년까지의 평균연령은 28.4세이다.

5) [그림1]에 제시된 두 분포는 각각 1980년대와 2000년대 분포들의 평균치를 계산한 결과이다.

국 분포 형태는 큰 변화가 없이 분포 전체가 3세 가량 우측으로 이동한 것이 합격자 평균 연령의 장기적 상승을 초래하였다고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이 현상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이하에서 다루어질 내용이다.

3. 최종합격자 평균연령 증가의 원천

그 동안 사법시험 합격자 평균연령 증가에 대해서는 체계적 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검토해야 할 기존 가설은 찾기 어렵다. 단 2003년에 법무부 관계자가 최종합격자 평균연령의 상승이라는 현상을 제시하면서, “합격자 정원이 증가하면서 합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수험생들이 취업이나 유학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고 계속 시험에 도전하는 게 고령화를 가져온 요인으로 풀이된다”는 설명을 제시하였는데, 굳이 분류하자면 이것은 응시자들의 응시기간 증가가 합격자 평균연령을 증가시켰다는 쪽에 무게를 둔 언명이라고 할 수 있다.⁶⁾ 이와는 달리 사법시험 관련 제도 혹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 이후의 응시자들이 그 이전에 비해 시험에 응시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졌다면, 이것이 시험에 합격하는 연령의 상승을 야기하였을 수 있다. 또 법무부에서 지적인 선발에 정인원의 증가와 같은 요인의 경우, 기존응시자의 응시기간을 늘릴 수도 있지만 20대 후반 혹은 30세 초반에 사법시험에 응시를 시작하는 고령 신규진입자를 증가시킴으로써 평균연령 상승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평균연령상승이 왜 발생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한 좋은 출발점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어떤 합격자 i 가 사법시험에 합격한 나이를 a_i 라 하면, a_i 는 시험을 시작한 나이(b_i)와 시험응시기간(d_i)의 합으로 결정된다. 즉

$$a_i = b_i + d_i \quad \text{----- (2)}$$

가 된다. 식(2)를 이용해서 위에서 논의된 두 가지 가설을 정리해 본다면, 합격자 평균연령의 상승은 이전보다 시험 응시를 시작하는 시점을 늦추어서 b_i 가 증가했거나, 응시자들이 합격하기까지 예전보다 더 오랫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밖에 없어서 d_i 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언제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시험 합격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걸렸는지를 보여주는 개인 단위의 자료는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두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응시자 전체의 연령 분포는 합격자 연령상승에 있어 응시시작연령과 응시기간 중 어느 것이 보다 주요한 원천이었는지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만일 응시자 연령분포가 [그림4] (A)에 예시한 바와 같이 변화하였다면

6) 문화일보 (2003).

이는 응시자들의 시험 응시 시작 지연이 합격자 평균 연령 상승을 야기한 주요 원천임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응시자들의 연령분포에 있어 [그림4] (B)처럼 고연령층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였다면, 이것은 d_i 가 증가하였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증가해서 합격자 평균연령이 높아졌을 가능성과 부합한다.

[그림5]는 1980년대와 2000년대의 응시자 연령분포를 제시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응시자 연령분포와 합격자 연령분포가 유사한 모양, 즉 F분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1980년대로부터 2000년대로의 변화 방식이 양자 모두 3세 가량의 크기 만큼 우측으로 수평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4] 등을 통해 제시한 추론에 근거해서 볼 때, 이러한 유사성은 기본적으로 사법시험 응시자들의 응시 시작 시점 변화가 합격자 평균연령 상승을 가져온 주요 원천임을 시사한다. 즉 응시자들이 과거보다 평균 3년 정도 나이가 더 들어서 응시를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합격자들의 평균 연령이 그만큼 상승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3]과 [그림5]에 나타난 응시자 및 최종합격자의 분포가 식(2)와 관련해서 함축하는 의미는 연령구간을 보다 통합한 뒤 구간별 응시자 비율, 합격률 (=합격자수/응시자수) 및 합격자 비율을 계산해 보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즉 이들 간에는

$$A_j = \sum_{m=1}^M \pi_{aj} T_{aj} \quad \text{----- (3)}$$

T_{aj} : j년도에 a살인 응시자수

π_{aj} : j년도에 연령이 a인 응시자들의 합격률, $\pi_{aj} = \frac{b_{aj}}{T_{aj}}$

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는데, 여기서 합격률은 응시자 분포와 합격자 분포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만일 1980년대와 2000년대의 응시자 분포와 합격자 분포가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큰 차이가 없다면 두 시기의 합격률은 거의 동일할 것이고, 합격자 평균연령상승은 응시자 연령분포 변화에 의한 것임을 도출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두 시기 간에 합격률의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응시자들의 응시기간 증가 등이 평균연령 상승을 가져온 요인임을 시사한다.

<표2>는 식(3)을 계산한 결과인데, 이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시자의 연령 분포를 30세 이전과 이후로 보면 3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1980년대 보다 2000년대에 20%p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앞서 [그림5]를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둘째, 합격률의 경우, 30세 미만과 30세 이상이 1980년대의 경우 4.0% 수준에서 사실상 동일하며, 2000년대에도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30세를 기점으로 볼 때, 연령간 시점간 합격률이 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합격률의 변화가 아니라 응시자들의 연령분포 변화가 합격자평균연령을 상승시킨 원천임을 시사한다. 셋째, 30세 미만 응시자의 비중 감소는 24세 이

하 구간에서 거의 대부분이 발생하였으며, 이들의 2000년대 합격률은 1980년대보다 거의 25% 가까이 하락하였다. 이 두 가지 요인은 대학 입학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과거보다 시험을 늦게 응시하기 시작하는 것이 응시연령을 상승시키고 아울러 20대 초반 응시자의 합격률을 낮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추정된다. 요약하자면, <표2>의 결과는 2000년대의 법조인 지원자들이 1980년대보다 전반적으로 3년 가량 늦게 응시를 시작했다는 것, 즉 식(2)의 b_i 가 상승한 것이 합격자들의 평균연령을 높였음을 보여준다.

4. 응시기간 장기화 가능성 분석

이상의 분석은 [그림4] (A)와 같은 분포의 변화, 즉 응시 시작 연령 상승이 합격자 평균 연령 상승에 중요한 원인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응시 시작 연령 상승이 응시기간의 장기화, 특히 30대 이상 응시자들의 응시기간이 과거보다 증가했을 가능성과 함께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 과연 고연령 응시자들의 응시기간이 증가했는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보유한 자료를 이용해서 응시자들 중 얼마만큼이 시험에 응시를 하고 얼마만큼이 응시를 포기하는지 계산해 보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판단을 진척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시험응시와 관련하여 신규진입율, 퇴출율, 순유입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해보자.

$$j\text{년도 연령}a\text{의 유입율: } \epsilon_{aj} \equiv \frac{E_{aj}}{D_{a,j-1}}$$

$$j\text{년도 연령}a\text{의 퇴출율: } \chi_{aj} \equiv \frac{X_{aj}}{D_{a,j-1}}$$

$$j\text{년도 연령}a\text{의 순유입율: } \eta_{aj} = \epsilon_{aj} - \chi_{aj} \quad \text{----- (3)}$$

D_{aj} : j년도 연령 a의 총응시자수

E_{aj} : j년도에 연령 a인 사람 중 신규진입자 (즉 j-1년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

X_j : j년도에 연령 a인 사람 중 퇴출자, 즉 j-1년도 응시자 중 불합격한 사람이 j년에는 응시하지 않은 경우

1기와 2기 두 시점을 상정해서 응시자들의 시험 응시 행태를 비교한다고 할 때, 2기 응시자들이 1기 응시자들보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중도포기하기보다 더 오래 시험을 보는 경향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는 고연령층의 퇴출율 하락을 가져와서 $\chi_1 > \chi_2$ 가 될 것이다. 유입율이 1기와 2기가 동일할 경우, 두 시기 간의 순유입율은 하락한다. 따라서

$$\chi_1 > \chi_2 \Leftrightarrow \eta_1 < \eta_2 \quad \text{----- (4)}$$

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진입 측면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가정을 도입할 경우, 순진입을 측정을 통해 퇴출율의 변화, 나아가 응시자들의 응시기간 변화에 대한 가설을 검증해 볼 수 있다.

식(4)에 대한 검정을 위해서는 순유입율을 계산해야 한다. 연령별 순유입은

$$D_{aj} = S_{aj} + E_{aj}$$

$$D_{a,j-1} = S_{aj} + X_{aj} + B_{aj}$$

S_{aj} : j년도 연령 a인 사람 중 j-1년에 이어 계속 응시하는 사람의 수

B_j : j년도 연령 a인 사람 중 j-1년도에 최종합격하여 j년도에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의 수

$$\Delta D_{aj} \equiv D_{aj} - D_{aj-1} = E_{aj} - X_{aj} - B_{aj} \equiv \Delta E_{aj} - B_{aj}$$

가 된다. 따라서 j년도 연령a의 순유입율은

$$\eta_{aj} = \frac{\Delta E_{aj}}{D_{aj-1}} = \frac{\Delta D_{aj} + B_{aj}}{D_{aj-1}}$$

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나아가 j년도 응시자 전체의 순유입율은 연령별 순유입율을 연령별 응시자 비율을 가중치로 한 합계, 즉

$$\eta_j = \sum_{a=1}^K \theta_{a,j-1} \eta_{aj} , \quad \theta_{a,j-1} = \frac{D_{a,j-1}}{D_{j-1}}$$

로 계산할 수 있다.

<표4>는 순유입의 연령별 추이를 비교한 결과이다. 이 양상은 30대 이상의 경우 2000년대의 순유입율이 1980년대보다 훨씬 낮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식(4)를 기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이상의 결과는 서론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사시의 본전 연령이 40세에서 35세 정도로 낮아”진 결과, 고연령층은 과거보다 응시를 포기하는 시점이 일반적으로는 더 빨라졌다는 추론과 부합한다. 결국 합격자 평균연령을 상승시킨 핵심요인은 응시기간 증가보다는 20대 초반부터 고령자까지 응시자 전반에 걸쳐 시작시점이 상승한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사법시험 응시자들의 응시 시작 연령은 왜 상승하였는가?

이상의 분석은 사법시험 응시자들의 응시 시작 연령이 왜 전반적으로 늦추어졌는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는 이들을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응시자들의 행태 변화와 시험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른 반응의 결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에 해당되는 요인들은 선발예정인원과 시험과목 변화 혹은 학점 이수제도 도입 등이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남녀 성비, 경기 침체, 사회민주화, 조기 군입대 추세 등이 검토될 수 있다.

(1) 선발예정인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무부는 2003년에 평균연령 상승을 발표하면서 선발예정인원의 증가가 이러한 현상을 가져온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사법시험의 선발예정인원은 1981년에 150명에서 300명으로 두 배 늘어난 이후 이 수준을 오랫동안 유지하다가, 1996년에 200명, 이후 점차적으로 100명씩 정원을 늘려 2001년에는 1,000명에 이르렀고, 이 수준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⁷⁾

선발예정인원 증가가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경로에 대해서는 “희망 응시자효과”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경로가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경제학에서는 경기가 나빠질 경우 구직활동자가 감소해서 오히려 실업율이 하락할 수 있는 현상을 실망노동자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라고 지칭한다. 이 개념에 의거해서 본다면 사법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증가는 실망노동자효과와 같은 현상이 음(陰)의 방향으로 작동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과거라면 시험을 포기했을 응시자들이 보다 높아진 합격가능성으로 인해 계속해서 시험을 치른 탓에 평균연령이 상승하였다는 의미에서 희망응시자 효과라고 명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응시자효과”가 이상에서 추론한 바와 같이 평균연령 상승을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응시자 수 증가 여부를 통해 검증해 볼 수 있다. 1차시험 응시자수는 1965년부터 1970년경까지 약 2,000명 수준이던 것이 1990년대 중반까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18,000명 수준으로 9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림6]). 하지만 응시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이 1,000명으로의 증가한 것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소의 등락을 감안하고 보면 1차응시자수는 1980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그 이후에는 17,000-18,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응시연령의 증가를 사법시험 정원 증가로 설명하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응시연령 변화 양상은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이 크게 증가한 결과 합격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대(rent)가 대폭 감소할 것을 예상해서 응시 자체를 줄이거나 조기에 시험을 중단하고 있다는 추론과 부합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지적할 것은 희망응시자효과 자체는 합격자의 연령분포가 변화하는 데 대해서는

7) 사법시험의 실제 선발인원은 선발예정인원과 거의 일치해 왔기 때문에, [그림3]에 제시된 선발인원 추이를 선발예정인원 추이로 보아도 무방하다.

별다른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만일 합격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졌다면 법조인 자격을 통해 보다 높은 기대이익을 취할 수 있을 젊은 층이 더 크게 반응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고연령층 합격자가 증가했다는 현상은 가설 자체가 함축하는 의미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2) 시험과목 변경 및 응시자격요건 변경

연령제한 혹은 학점의무이수와 같은 응시자격의 변동이나 시험과목의 변경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늦추는데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우선 응시자격 변동이 합격자 평균연령을 상승시켰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와 같은 공무원 선발시험들과는 달리 연령에 대한 상, 하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령제한이 응시연령상한을 가져왔을 가능성은 없다. 한편, 1963년 사법시험제도가 시행될 때는 사법시험 응시자에게 일정 수준의 대학교육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요구하였지만 이 규정은 1972년에 철폐되는데, 이후 2001년에 와서 사법시험법 제정과 함께 법학과목의무이수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변화 역시 시기상으로 볼 때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연령상승 추이와는 무관하다.

사법시험 과목은 몇 차례 바뀌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합격자 평균연령의 장기적 변화를 초래하는 경로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다. 한 가지 예외는 2000년대 초에 사법시험 외국어 시험을 Toeic, Toefl 등의 시험으로 대체한 점이다. 해당 연도 직전에 응시자가 10,000명 가까이 증가하였다가, 2004년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것은 영어 시험 제도 변화가 응시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단, 영어시험의 상대적 강화는 응시자의 평균연령을 상승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평균연령 하락을 주도할 수 있는 요인이며, 실제로 2004년 경에 연령이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 역시 평균연령 상승을 설명하는 요소로 보기에는 부적합하다.

(3) 경제성장률 혹은 경기변동

경제성장을 혹은 전반적인 경제 여건의 장기적 변동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법시험 응시 여부에 상반된 방향의 힘을 가한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높으면 가족 등 친인척의 소득이 증가해서 응시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가 용이해지고, 그 결과 사회전체적으로 응시자수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높은 경제성장률은 시험응시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승시키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응시자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경기침체에 응시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사법시험 응시자수의 장기추이를 보면, 경제성장률의 장기 추이와 응시자수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경제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던 1997년 이전까지는 응시자의 수가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한 반면, 외환 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성장세가 둔화된 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17,000-18,000명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른 요소들이 동일할 경우,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가 법조인 지원자들의

시험응시를 경제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지배적인 효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추론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적절하게 통제했을 때 신뢰할 만한 명제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경제의 전반적 상황이 앞서 확인한 응시자의 연령분포변화, 즉 전반적인 응시 시작 연령 상승에 대해 어떻게 작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명제를 도출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에 의한 경제적 지원이 응시자들의 시험 응시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면, 왜 이것이 저연령층의 응시를 줄였는지 혹은 왜 응시시점을 앞당기는 대신 늦추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미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경제상황 역시 평균연령상승을 설명하는 적절한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군입대 연령 및 방식의 변화

남성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병역을 어떻게 이수하는가는 응시자 및 합격자의 평균연령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사법시험 응시자들이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필했던데 비해 1980년대 말 이후 병역을 이수한 뒤에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면, 3세 가량의 평균연령상승은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병역 이행 방식을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사람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은 간접적으로나마 이 문제를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림7] (A)는 “ㄱ”표본을 이용해서 남성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연수 과정 수료 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사람들의 수와 이들이 남성 합격자 중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합격자의 수는 전체 선발예정인원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남성합격자 중 군법무관 임관자의 비율은 선발예정인원이 300명으로 증가하는 1981년을 기점으로 20%p. 가량 크게 하락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시점은 합격자 연령 증가가 시작되는 1980년대 후반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연령증가를 설명하는 요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5) 남녀 성비

남성의 군복무 이행 방식이 바뀌지는 않았더라도 남성의 군복무 의무 자체로 인해 남성 합격자의 비율 증가는 합격자의 평균연령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림8] (A)는 합격자의 연령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해서 측정한 결과인데, 남성들의 평균 연령은 여성들보다 평균 3세 가량 높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남성합격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면 평균연령 상승에 크게 기여했을 수 있다. 하지만 응시자 성비는 오히려 평균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합격자 성비가 연령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기각된다. 여성합격자의 비중은 1990년까지 5% 미만에 머물렀지만, 이후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8년에는 40%를 넘어서게 되었다 ([그림8] (B)).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90년대 중반 이후의 평균연령 상승은 여성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결국 남녀 간의 행태 차이를 통해 합격자 연령상승을 설명하는 것은 크게 설

득력을 얻기 어렵다.

(6) 소결

이상에서는 합격자 평균연령 변화와 관련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인들을 가능한 한 폭넓게 검토해 보았다. 문제는 이 중 많은 요인들이 20대 초반 응시자의 평균연령 상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병역의무 이행시점이나 여성합격자 비율처럼 논리적 관련이 명확한 경우에는 연령 상승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합격자 연령 상승에 대한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데에는 대학생들의 재학 시절 생활 방식이나 취업 준비 과정이 장기적으로 변화해 왔을 가능성을 폭넓게 고려하지 못한 점이 크게 작용하였을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폭넓은 고려가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사법시험 합격자의 평균연령이 지난 40년 동안 3.7세나 증가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사법시험 합격자 및 응시자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합격자의 평균연령 상승은 응시자들의 시험 준비 시작 시점이 3년 가량 늦추어진 데 따른 결과였다.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까지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 과거보다 더 오래 응시를 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왜 이와 같은 응시 시작 시점의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하였으나 명확한 답을 얻지는 못하였다. 특히 20대 초반 응시자들의 평균 응시시작 시점이 3년 가량 상승한 현상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대학생들이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고시에 도전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또 그 준비 시점도 빨라졌다는 통념과도 배치된다는 점에서 더욱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은 현재 대학생들이 장래의 직업선택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얻게 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풍부한 자료를 통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변호사의 절규 “아 옛날이여~””, 2004.8.13.

문화일보, “사시합격자 고령화”, 2003.2.17.

한국경제신문, “사시 합격자 평균연령 '작년 28.8세'로 높아져”, 2003.2.16.

총무처, 『총무처연보』, 각 연도.

고시계사, 『월간 고시계』

<표1> 사법시험 응시자 및 합격자 관련 자료

	연도	대상	성격	비고
총무처	1963-2000	최종합격자	집계자료	몇 개 연령 구간으로 집계
법무부	2002-2010	응시자 및 최종합격자	집계자료	매 연령별 제시, 남녀 구분
고시계	1980-1989	응시자 및 최종합격자	집계자료	매 연령별 제시
법조인대관 “ㄱ”표본	1963-2009	최종합격자	개인단위자료	

주: 고시계 자료의 경우, 응시자는 1980, 1982, 1983, 1985, 1986, 1987년, 최종합격자 자료는 1982년부터 1989년까지가 게재되어 있다.

<표2> 응시자, 합격률, 합격자의 연령별 분포 (%): 1980년대와 2000년대

	응시자 (T_{aj})		합격률 (π_{aj})		합격자 (b_{aj})	
	1980년대	200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30세 미만	83.9	63.3	4.0	4.3	84.7	66.3
24세이하	48.7	24.8	3.9	3.0	47.8	18.1
25-29세	35.2	38.5	4.2	5.1	37.0	48.2
30세 이상	16.1	36.7	3.9	3.9	15.3	33.7
30-34세	11.0	22.4	4.6	4.7	12.7	25.4
35세이상	5.1	14.2	2.0	2.4	2.5	8.3
합계	100.0	100.0	4.0	4.1	100.0	100.0

주: 응시자와 합격자는 하위범주의 단순합이 상위범주값이며, 합격률은 하위범주의 가중평균이 상위범주값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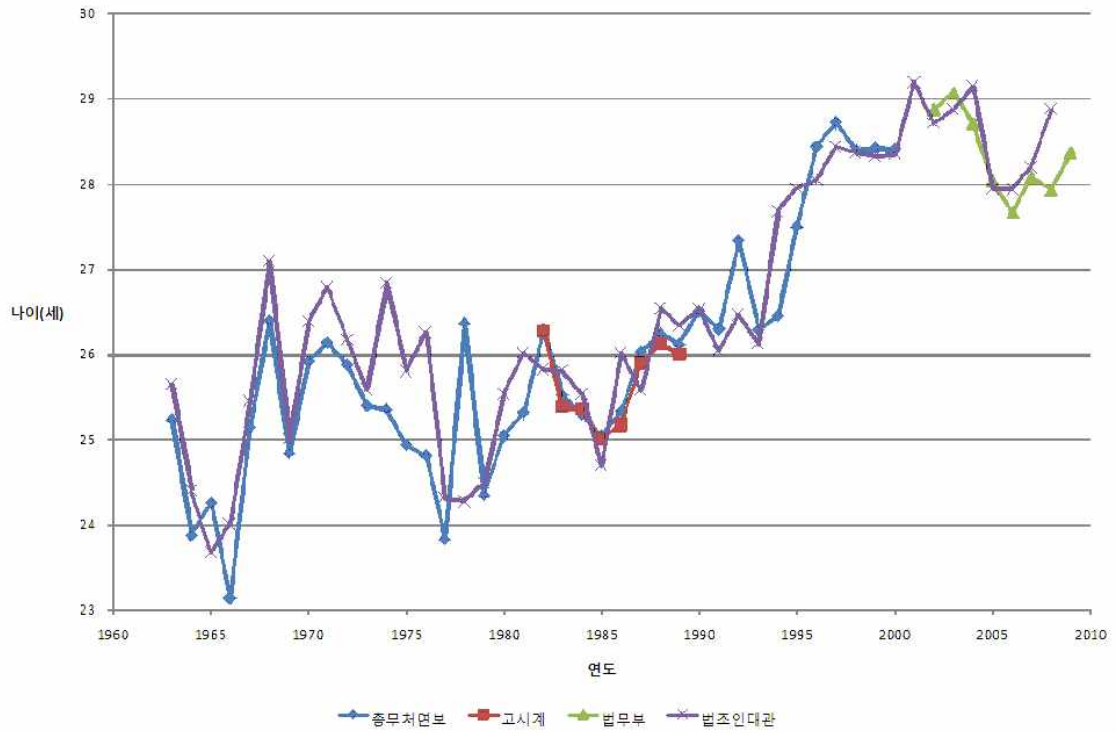
<표3> 응시자 순유입율 (%): 1980년대와 2000년대

	1980년대	2000년대		
		전체	2003-2005년	2006-2009년
30세 미만	2.35	1.29	0.81	1.65
24세 이하	2.07	1.38	1.04	1.63
25-29세	0.28	-0.09	-0.23	0.02
30세 이상	-0.27	-1.28	-2.11	-0.66
30-34세	-0.21	-0.57	-0.89	-0.34
35-39세	-0.06	-0.43	-0.63	-0.28
40세 이상	0.00	-0.28	-0.60	-0.04
전체	2.08	0.01	-1.30	0.99

<표4> 사법시험 응시과목 및 응시자격 변화

시행일자	공표일자		
2004년	2000년	영어대체시험제도 실시	사법시험법 시행령 제4조
2006년		법학과목 35학점 이수	사법시험법 제5조, 부칙 제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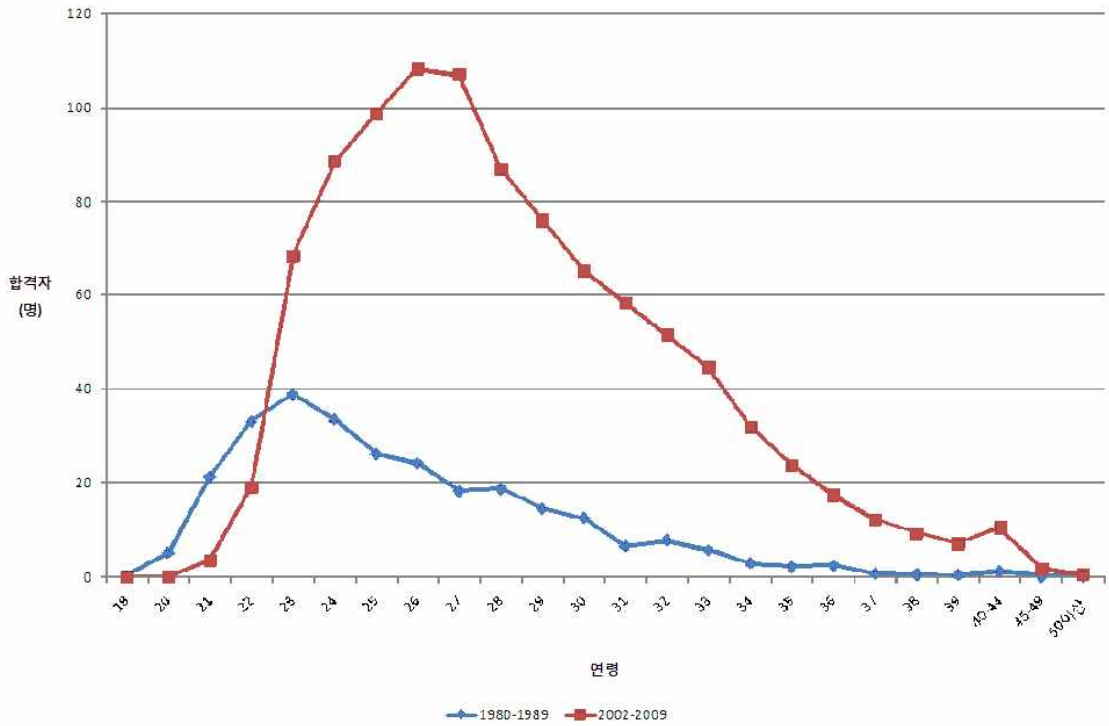
[그림1] 사법시험 최종합격자의 평균연령 추이, 1963-2009



주: 1963-1986년은 25.2, 1987-2000년은 27.2, 2002-2009년은 28.3세이다.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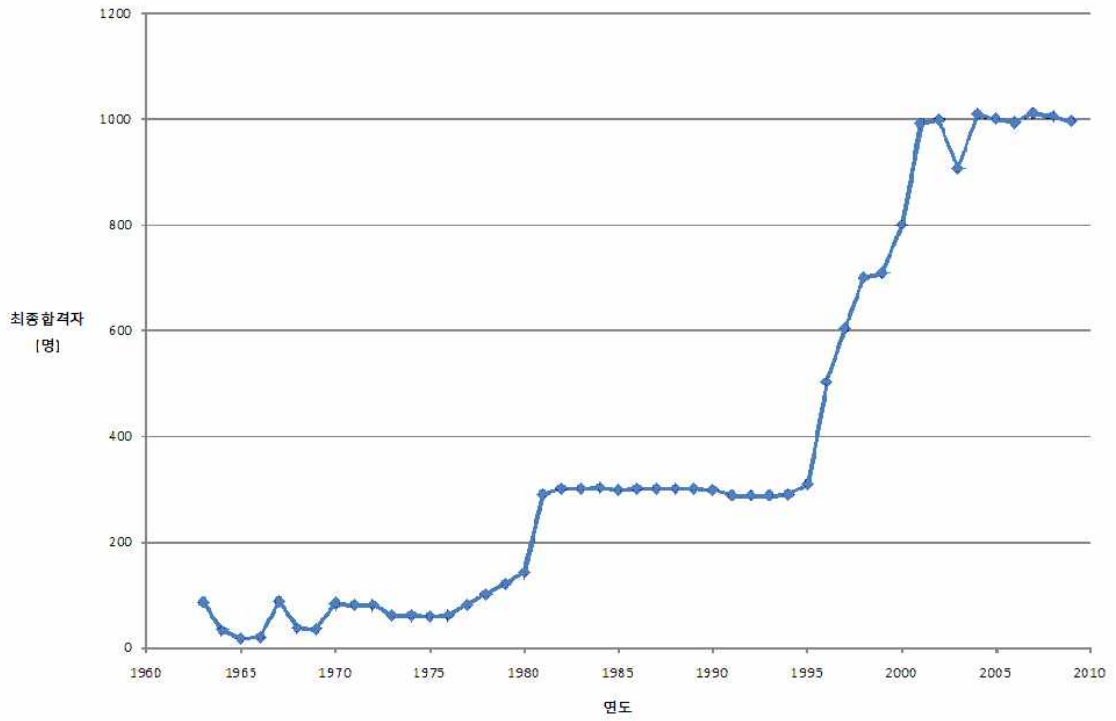
[그림2]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연령 분포, 1980년대와 2000년대의 비교



주: 1980년대 곡선은 고시계 자료 중 연령분포가 제시된 연도들로부터 평균값을 계산한 결과이다. 마찬가지로 2000년대 곡선은 법무부 자료로 평균을 구한 것이다.

자료: 본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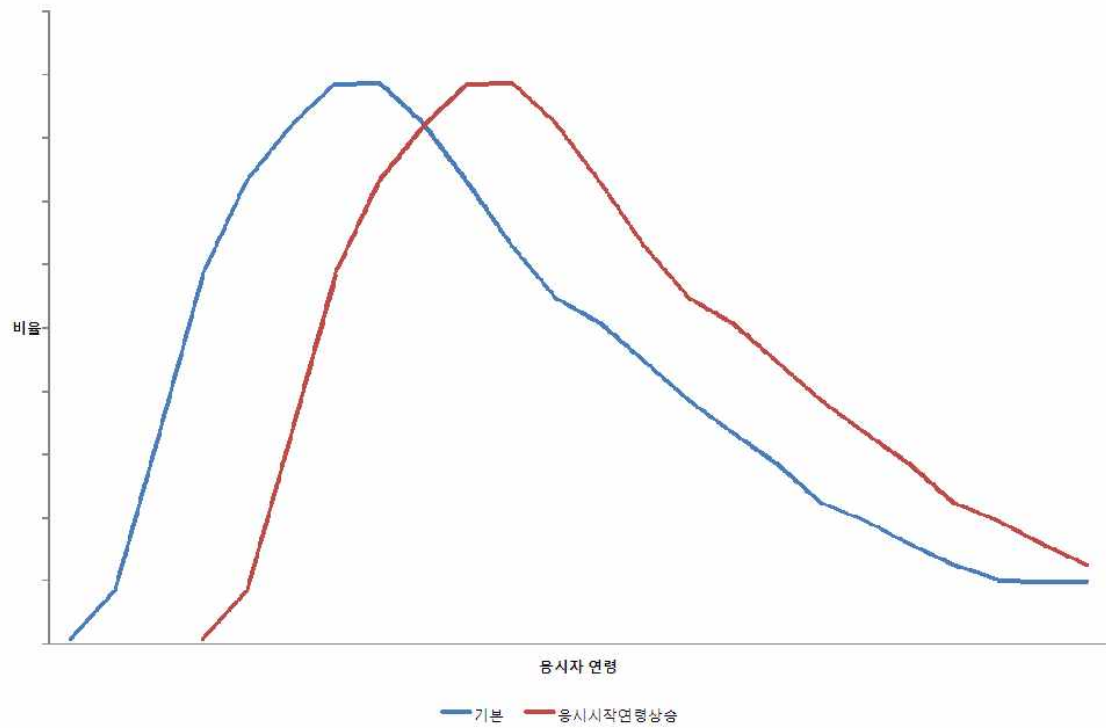
[그림3] 사법시험 선발인원 추이, 1963-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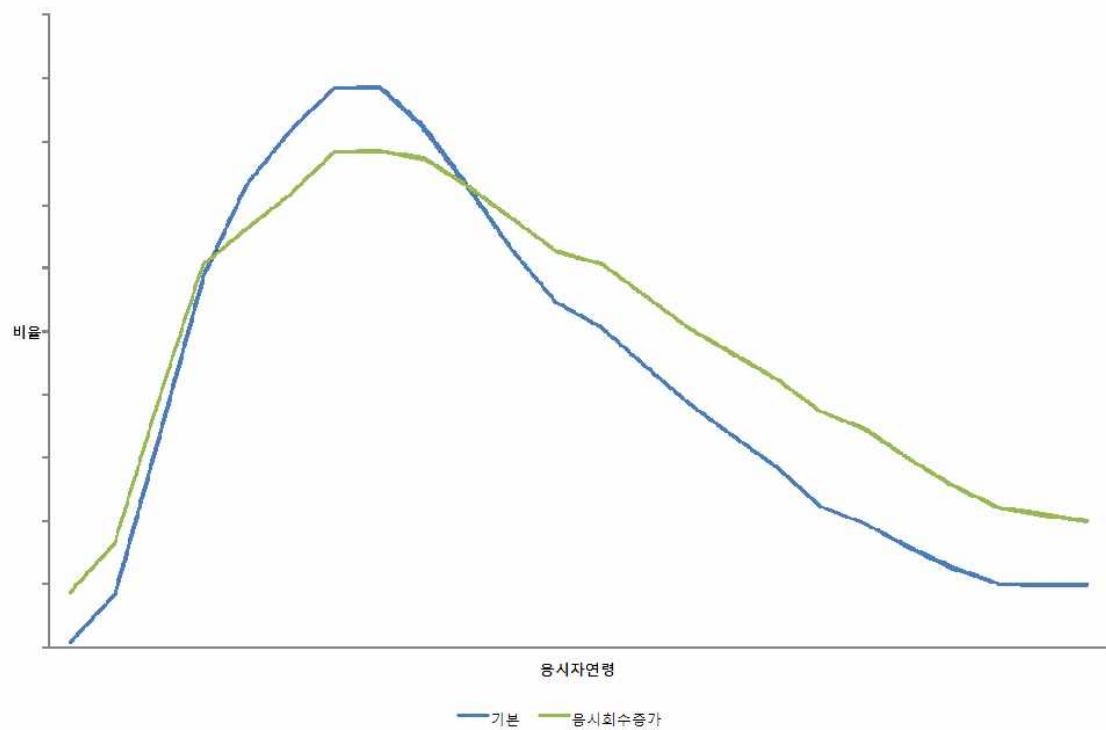
자료:

[그림4] 응시자 연령분포 변화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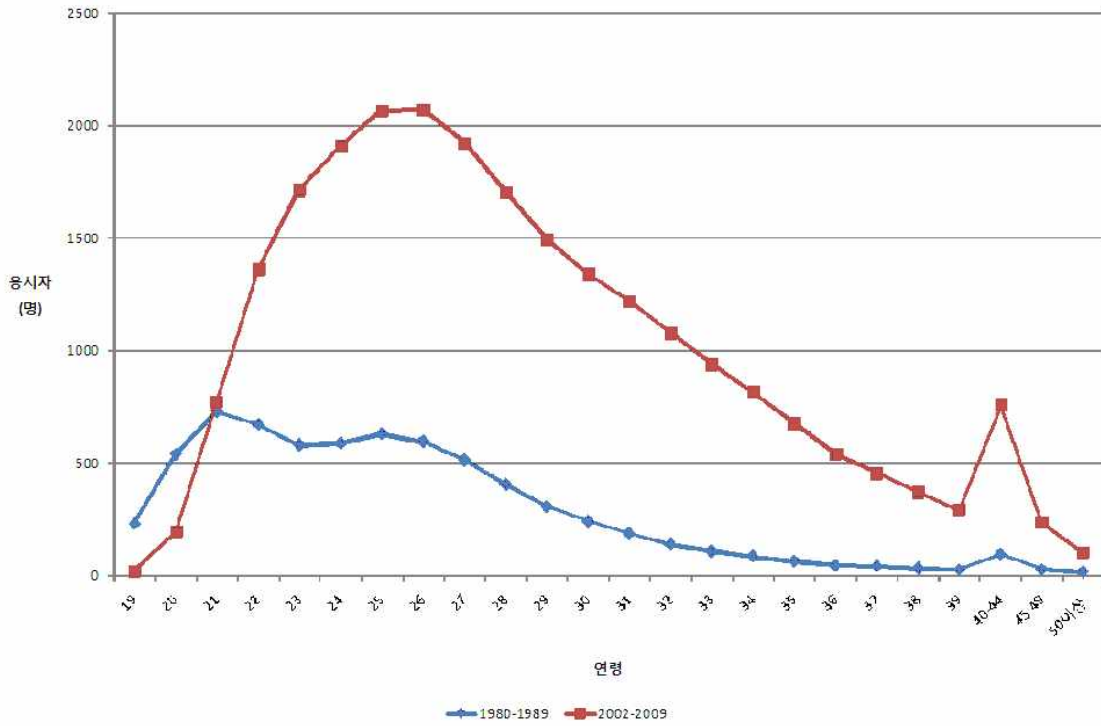
(A) 응시 시작 연령 상승



(B) 응시회수 증가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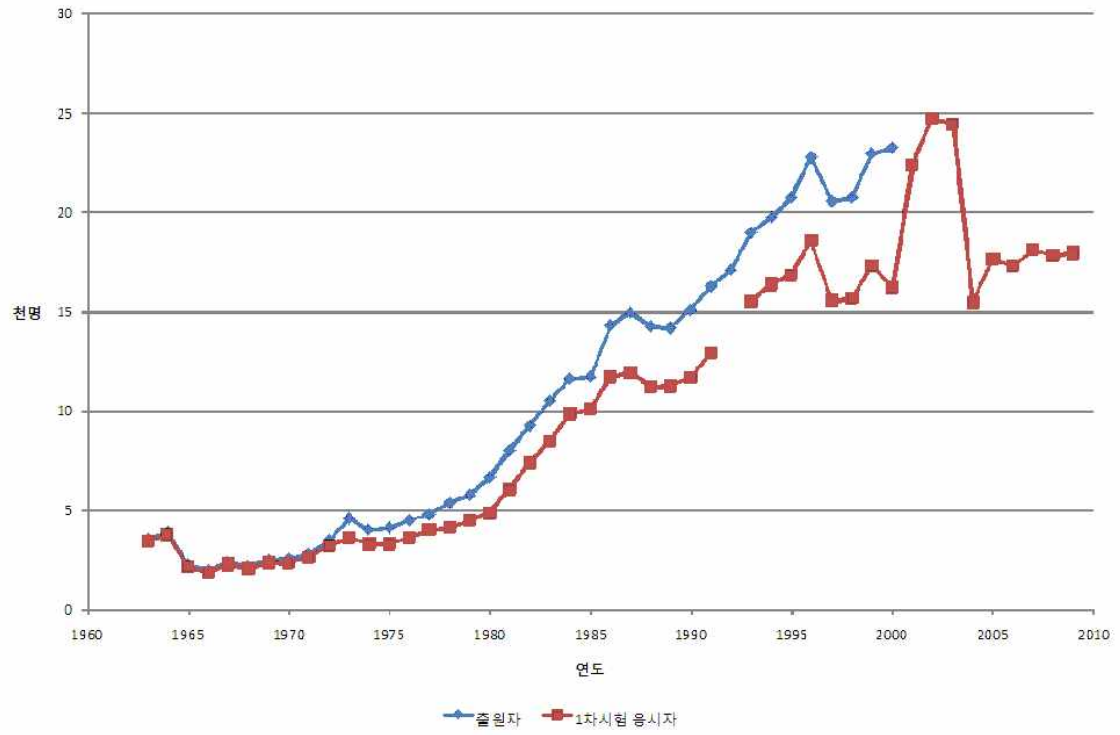


[그림5] 사법시험 1차시험 응시자 연령분포: 1980년대와 2000년대



주: 최종합격자는 1980년대는 300명, 2000년대는 1,000명 가량이다.
 자료: 본문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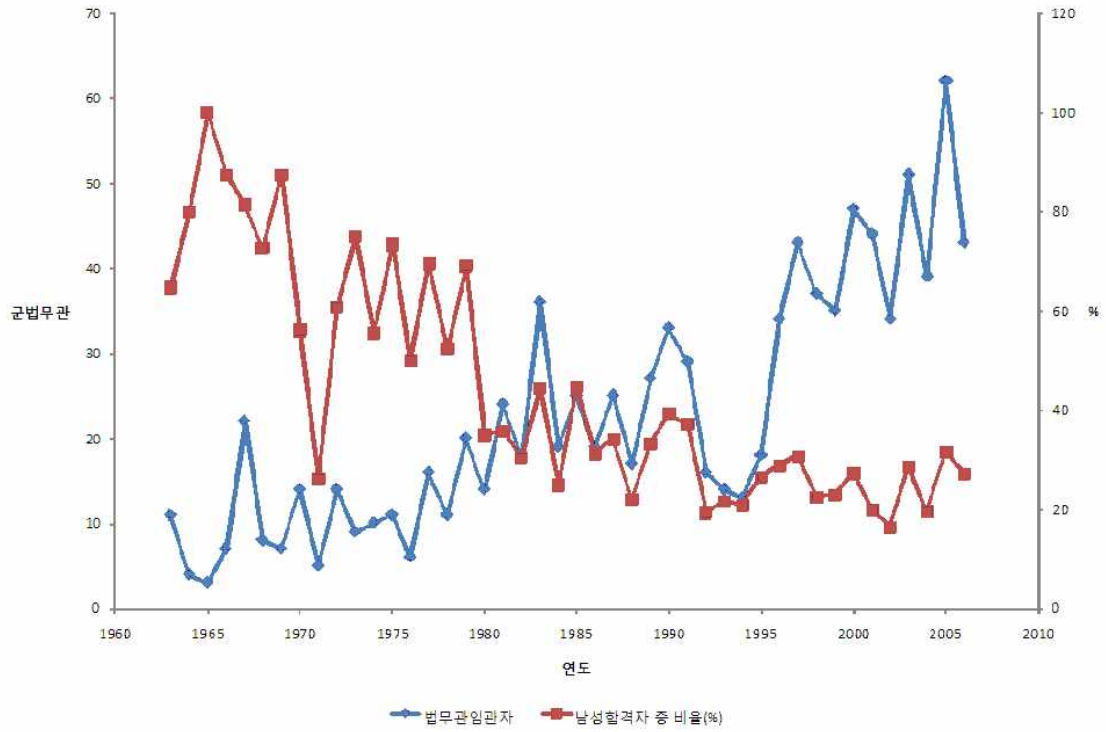
[그림6] 사법시험 응시자수, 1963-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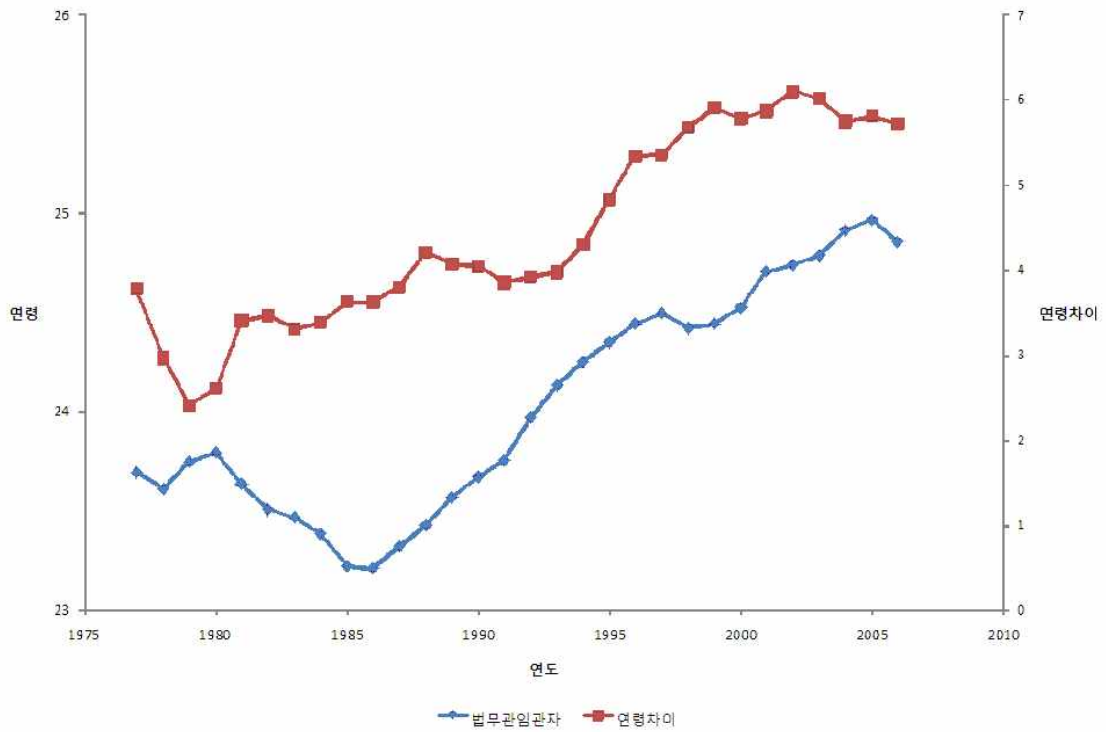
자료: 본문 참조.

[그림7] 군법무관 임관자수 및 평균연령

(A) 군법무관 임관자수



(B)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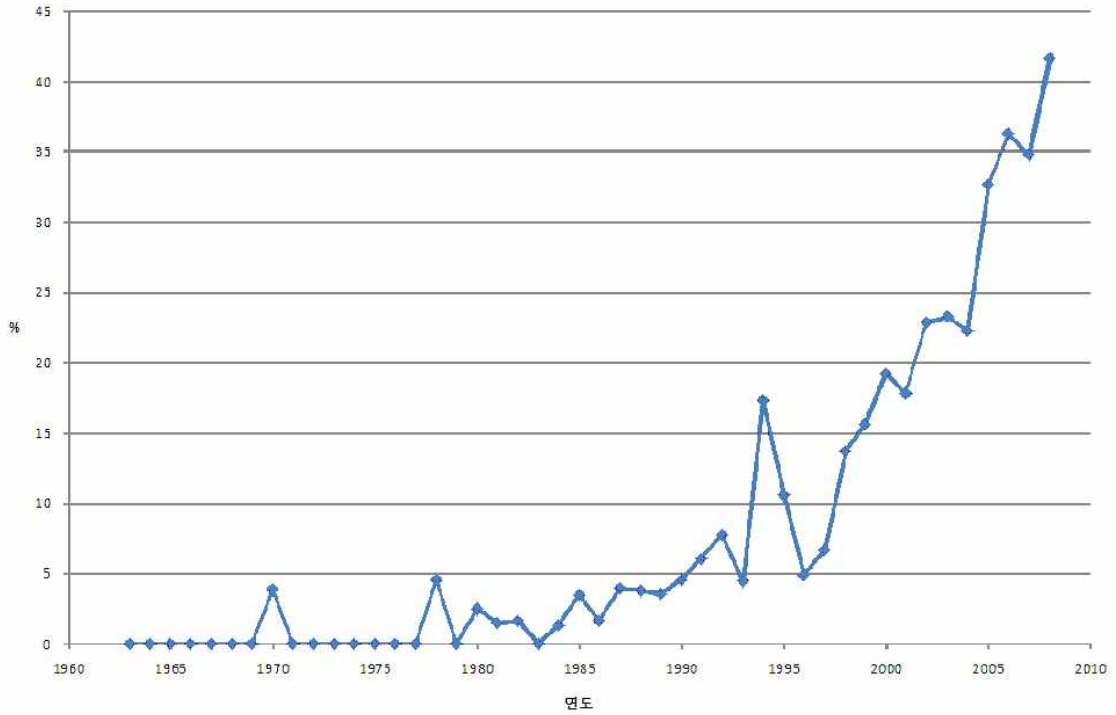


주: 연령차이는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법무관으로 임관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의 연령차이를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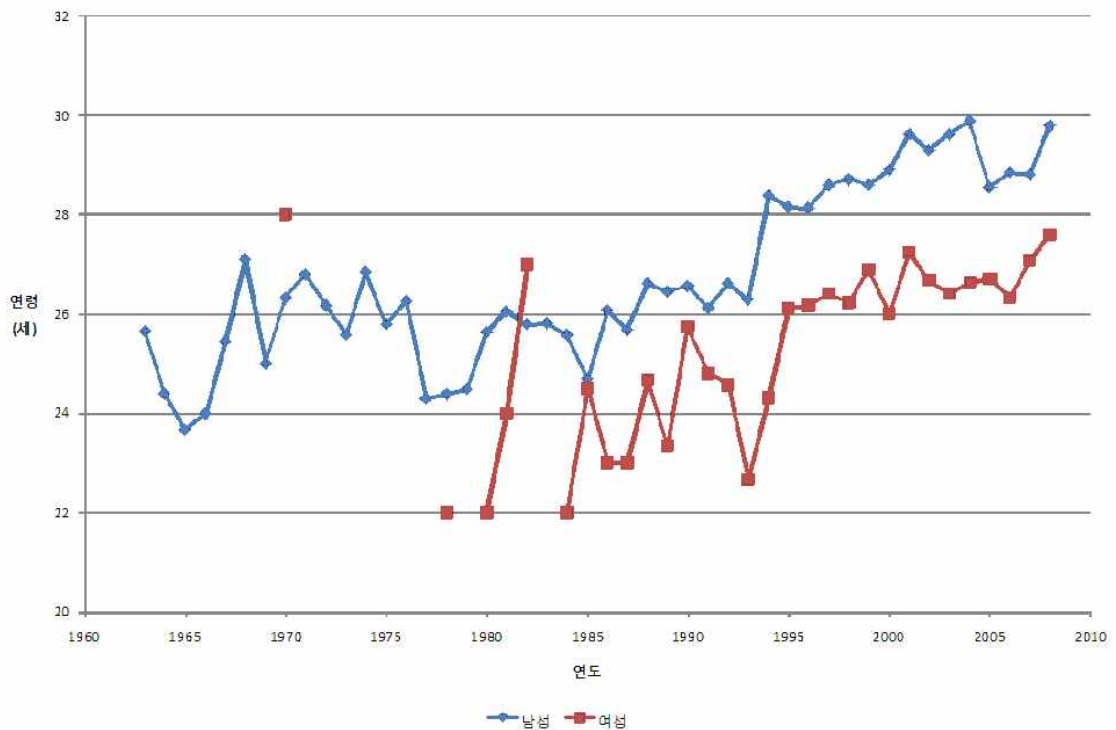
자료: 법조인대관 “ㄱ”표본.

[그림7] 사법시험 여성 합격자 비율과 남녀 합격자의 평균연령

(A) 여성합격자 비율



(B) 성별 평균연령



자료: 법조인대관